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신문담

한암 스님(4)

사토, 본연청정한데 어찌 산하대지입니까
한암, “...” (방문을 열고 청산을 보여준다)

일제강점기의 어느 날, 한암(漢巖, 1876~1951) 스님이 상원사에 주석할 때의 선편다. 월정사 종무소에서 전같이 오길, 일본 조동종 관장(宗長)을 지낸 경성제국대학 사토 타이준(佐藤泰舞) 교수가 면회를 요청하니 곧 내려오시라는 것이었다. 그 때 상원사에서는 한암 조사의 지휘 아래 가을 김장 준비로 발길이 끊여서 내려가지 않았다.

얼마 후 사토 교수 일행이 직접 상원사로 올라오자, 통역이 작업을 중지하고 귀빈을 맞으라고 성화였다. 통역이 다시 조르자 한암 스님이 말했다.

“가서 물어보게. 나를 찾아보려 왔는지, 절 받으러 왔는지.”

이윽고 사지방으로 들어온 사토 교수는 공손히 예배하고 법문답을 청했다.

“본연청정(本然淸淨)한데 어찌 산하대지(山河大地)입니까?” 한암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방문을 활짝 열고 청산(靑山)을 보여주었다.

이 신문담은 장수(長水) 선사와 낭야(廊野, 991-1067) 선사간의 문답으로도 전해질 만큼 유명한 공안이다.

장수 선사가 낭야 선사에게 가서 묻되, <능엄경> 가운데 부루나 존자가 부처님께 물기를 “청정본연커늘 어찌하여 문득 산하대지가 생겼습니까(淸淨本然 云何忽生 山河大地)?” 한 질문을 인용하여, 다시 “청정본연커니 어찌하여 산하대지가 생겼습니까?” 하였다.

그러자 낭야 선사가 반문하되, “청정본연커늘 어찌하여 문득 산하대지가 생겼는고?” 하였다니, 장수 선사가 언하에 깨쳤다는 것이다. 그것은

장수 선사와 물은 것도 없는 것에 한 생각을 공연히 일으켜서 ‘물은 그 자체가 산하대지를 나타내게 한 것’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장수 선사와 사토 교수의 질문은 동일했지만, 한암 스님은 ‘만목청산(滿目靑山: 보이는 그대로가 진리인 세계) 즉, 산하대지를 직접 보여주는 말없는 지혜작용으로 오히려 낭야 선사 보다 더욱 명쾌한 대답을 하고 있다.

본래 청정한 법신(法身)에서 어찌하여 무명(無明)이 일어나 산하대지의 세계와 중생이 생겼느냐 하는 것 통역이 다시 조르자 한암 스님이 말했다.

이에 대해 대승불교는 미혹한 눈으로 보던 세계가 유리(琉璃) 세계로 보던 세계가 더러운 세계가 더러운 곳으로, 중생이 악의

덩어리로 보이지만, 깨달은 눈으로 보면 세계가 유리(琉璃) 세계로 보인다고 한다. 법계가 본래 청정한 것을 깨닫고, 또 깨닫지 못한 차이로 달라 보인다는 것이 대승의 가르침인 것이다.

이에 대해 <능엄경>에서는 본래 깨진 성각(性覺)이 망념으로 인하여 본연청정한 것을 가리고 지, 수, 화, 풍, 공, 견, 식(地水火風空見識)의 7대 만법이 연기되어서 무기물의 세계와 생명계의 중생이 생겼다고 본다.

즉, 부처님께서는 “무명의 망념으로 인하여 세계도 생기고 중생도 생기고 기타 만물이 생겼느니라” 하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선종에서는 단적으로 “한 생각이 쉬면 본연청정한 세계요, 선악으로 나누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오락막새다” 라고 말한다.

즉, “다만 한 생각의 차이로 인하여 만 가지의 형상이 나타났다(只因一念差顯出萬般形)”는 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좌선으로 마음 정화하니 날마다 좋은날”

거사선의 리더들 ⑦ -선도회 법장 권영두 법사

삼보법회에서 법장 거사를 처음 만난 때는 4년 전. 그 후 2년 뒤 점심식사를 같이 하고 다시 1년 만에 서울 행촌동 자택에서 만났다. 정안현(正眼軒)이란 호(號)를 붙인 아담한 발라에 혼자 기거하는 거사의 살림살이는 그야말로 소박했다. 듄직한 아들(현오현 대성의학사 대표)이 있지만 따로 사는 이유는 오로지 후진 향상을 위함이다.

현재 법장 거사가 개인지도 하고 있는 제자는 모두 8명.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며, 이 중 한 명은 교도소에서 편지로 지도점검을 받고 있다. 선도회(지도법사 박영재)의 특징은 무엇보다 1대 1로 잠

기란 힘든 일이다. 그래서 그는 꼼꼼히 수행자의 구도여정과 발심 여부를 들어본 후 제자로 받아들인다. 어설플 각오로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무문관 4칙 공안 투과

1930년 경북 영덕에서 출생한 그는 57년 육군 중위로 예편한 뒤 사업과 출판업 등을 하며 살다가, 40대 후반에 불교에 입문했다. 처음엔 기초교리를 독학으로 습득하고 삼보법회에서 7년간 불법을 배워 <금강경> 등을 막힘없이 외우고 할 수 있었지만, 좀체

느꼈다는 그는, 수행의 힘으로 어떤 경계가 닦여도 초연할 수 있었다. 11년 전 40여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와 갑자기 사별했지만, 평상심(平常心)으로 잘 견뎌낼 수 있었다. 98년 2월 나라의 외환위기로 부도가 났을 때도 극복할 수 있었다.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걸림 없이 낙관하고 자족(自足)하니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이다.

수행의 힘으로 평상심 생활화

그에게 좌선의 힘으로 이어지는 생활 속의 동중(動中) 공부의 일종의 보필공부와 다름없었다. 경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不動心)과 번뇌·망상과 시비·분별이 사라진 평상심이 일상화된 생활은 어느새 세상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뀌어놓았던 것이다.

“나는 좌선을 생활화하면서 이 세상을 극락정토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니,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이상을 실현하고자 애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고 미움조차 사라져, 날마다 삶은 새롭고 좋을 뿐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日日是好日)”이 되기 위한 좌선의 요체는 역시 말이 아닌 끊임 없는 실천에 있었다.

“좌선은 심신을 본래대로 확실히 바꿔 사물과 일체가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초지일관(初志一貫)하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수행자는 지식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파나는 정진으로 몸소 겪어본 후, 실생활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를 타고 앉아 가거나 걸어 다닐 때도 반드시 단전에 지극히 힘을 넣고 ‘무(無)’자 등의 화두를 참구하면서 다니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젊은이들에게 좌선 알리고 싶어

2001년 생업에서 은퇴 후 자유로운 삶을 만끽하고 있는 그의 마지막 숙제는 젊은이들에게 좌선을 하면서 누리는 맛과 기쁨을 전하는 일이다.

“젊었을 때 좌선에 접근할 계기가 전혀 없었던 것이 너무 한(恨)이 되어 젊은이들에게 좌선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복잡한 세상살이에 오염되기 전부터 좌선을 시작하면 훨씬 앞당겨 멋진 인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할아버지처럼 자상한 노 거사는 오늘도 작지만 큰 도량에서 구도심에 불타는 용기 있는 수행자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문 없는 문’을 열겠다는 발심자는 지금 즉시 정안현의 현관문을 노크해 보는 것이 어떨까. (011)384-4722 김성우 객원기자 buddhania5@daum.net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인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바타 센터
전환하는 본체는 언제든 보냅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센터 김희교

수행개시판
●금강경오해 강의 및 철야정진=공주 학원사 오동신선원은 매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강의합니다.
●심산법 및 철야 아바타기도=강화 연등국제선 원은 8월 25일(매일 밤) 철야 아바타기도를 9월 8일(매일) 둘째 주 심산법 정진을 실시한다.
●철야나심에 집중수행=매곡선원 8월 24~26일 공주 금암리 집중수행장에서 사타마 본상과 위빠사나 철야나심을 수행한다.
●주일 철야행=매곡선원 8월 24~26일 공주 금암리 집중수행장에서 사타마 본상과 위빠사나 철야나심을 수행한다.

천연 백수정 108 염주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불멸의 염주
특별중정 손목단주
축원불공 마치고 시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승리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천연백수정 108염주가 수입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바위에 석불을 만들고 석불이마에 영험을 발하기 위해 백수정을 점안해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 광명으로 맑고 깨끗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영원불멸의 부처님 보석이라하여 천연백수정을 몸에 지니고만 있어도 닦쳐올 화를 미리 훑고 건강을 지켜주며 원하는 3가지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행운의 보석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공양구로 사용한다.
고대인도와 아라비아 상인, 정치가, 지도층 인사들의 전통모자에는 어떠한 고통과 역

제사용 백연화 향로 출시
99% 황동으로 제작! 후손에게 물려줄 가보!
제사를 지내는 의식중에 제일 중요하고 엄숙해야 할 의식이 첫번째로 분향이다. 신위(神位)에서 오시도록 향로에 향을 피워 인도하는 의식으로 제사용으로 강신(降神)이라 한다. 강신은 제주(際主)를 위시하여 제사에 참석한 모든이들이 신위 앞에 선다음 제주는 무릎 꿇어 향로에 분향을 한다. 이때 신위에서는 천 가지 눈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후손들이 행동가질도 바르게 해야하고 음식도 정갈하게 하며 향로 또한 동물모양등의 조각이 없는것을 사용해야 한다. 백연화 향로는 하얀 연꽃이란 뜻으로 마음으로 신위(神位)를 모신다는 뜻과 후손들은 하얀연꽃으로 신위를 영접한다는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향로다. 신광사에서 제작한 백연화 향로는 99%황동만으로 정교하게 제작되어 천연이 지나도 변색변질되지 않게 베르린 왁스 까지 처리하였다. 자자손손 가정의부와 명예를 얻게 일곱부부의 백연화향로에 피어 있어 가정의 가보로 품위있게 제작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다음날 택배로 받아 제사때 사용할 수 있다.
가격:98,000원 문의(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여성용 銀나노 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이 있습니다.
남성용 銀나노장지갑

음마니반메홈 福 지갑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 얻으리라!
소중한 친지에게 사업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음마니반메홈은 부처님 영험으로 물질로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묘스럽게 해결된다는 음마니반메홈은 불경 신묘장구다라니경에 상세히 기록된다. 물질로 고통 받고 있는 중생과 병고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번 부처님께서 음마니반메홈을 마음속으로 흡수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묘스럽게 해결된다는 뜻으로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에서 돈과 복이 들어오게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이 헛되어 나가지 않게 하는 팔십삼부구 보병을 넣었으며 지갑내부 뒷면에는 앞으로 사는동안 막힘없이 모든일들이 성공되게 하는 비방인 부처님발상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금·銀나노까지 처리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다. 출시 8개월 된 음마니반메홈 복지갑은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묘하게 회복되고 안되던 장사가 잘되고 가정이 풍요로워 지는 등 모든 가지가지 문제들이 신묘스럽게 해결된다는 입소문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는 지갑이다.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신 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 주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 되게 100일 특별세벽축원 불공을 올려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장지갑6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